



팔당역에서 을숙도까지 3박 4일 자전거 국토종주 ②

+ 조성도 EBS 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 차장

구성

1부 :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출발전부터 1~2일차 팔당역에서 상주까지

2부 : 3~4일차 상주에서 을숙도까지, 그리고 후기. 돌아가지 말라던 말씀!

자전거 국토종주 3일차

나야 일찍 끓아떨어졌지만, 자전거 민박집은 밤새 짝뿔 시끄러웠나 보다. 밤늦게 도착한 사람, 새벽에 떠나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 무용담으로 벌인 술판들~~~ 20년 전 유럽 배낭여행의 기억이 데자뷔같이 떠올랐다. 낮에 돌아다니던 각자의 여행경험을 저녁에 플랫폼에서, 기차간에서, 숙소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인들과 얼마나 떠들었는지, 어젯 밤 9시에 도착한 젊은 친구는 새벽 5시에 쥬아줌마가 끓여주는 라면 하나 먹고 떠났다. 어제 새벽 4시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17시간을 달려 하루 만에 상주까지 왔는데, 오늘 부산 을숙도까지 갈 계획이다. 대단한 체력이다 했더니, 체력은 의외로 무난한데 엉덩이 아픈 게 걱정일 뿐이란다.



그런데 이들간의 강행군에 체력 고갈이 멘탈을 지배하나 보다. 구미보에서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한 십 리를 가서 보니 뭔가 허전한 거다. 배낭을 안 메고 왔네. 이런 이런... 되돌아가는 길은 맞바람도 참 세더라. 상주 민박집에서 한 테이블에서 밥같이 먹었던 일행 두 명이 중도 포기했다. 한 명은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면서 칠곡쯤에서 빠졌고, 또 한 명은 어젯밤에 과한 술이 탓인지 속이 안 좋다면서 강정고령보에서 빠졌다. 이별을 핑계로 막걸리를 마셨다.



드디어 고향 달성에 진입했다. 달성 산단 유치로 떠들썩하던 와중에 사라질 뻔했던 고향. 손바닥만 한 논밭이 전부 산단에 편입되었지만, 다행히 집이랑 집 앞 텃밭, 그리고 산은 살아남아 首丘初心의 구심점을 이어가고 있다. 이화령 이북은 벌써 모내기가 끝났는데, 여긴 아직도 한창이다. 물만 잡아놓고 모내기는 아직 시작도 못 한 논도 많다. 달성보 인증센터 옆에는 이런 우회안내가 있다. 그러나 다람재고개를 향한 집념이 요런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이스케키 하나 먹고는 출발. 지나치면서 봐도 달성보는 미려한 맛은 없다.



박석진교를 지나 끝없는 뚝방길을 가다 보면 경사 12%의 300m 다람재고개 안내판을 만난다. 아! 4대 고개의 첫 관문이구나! 다행히 길이 꽤나 넓어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별로 어렵지 않다. 헉헉대면서도 카메라 꺼내서 까마득히 보이는 정상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분명히 300m로 본 거 같은데, 실제 주행거리는 3Km는 더 되는 거 같다는... 운전할 때도 몇 번 느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잣대가 달라지는 모양이다. 바로 조기라고 하는 농부의 말을 듣고 가보면 하염없이 가도 안 나올 때가 많았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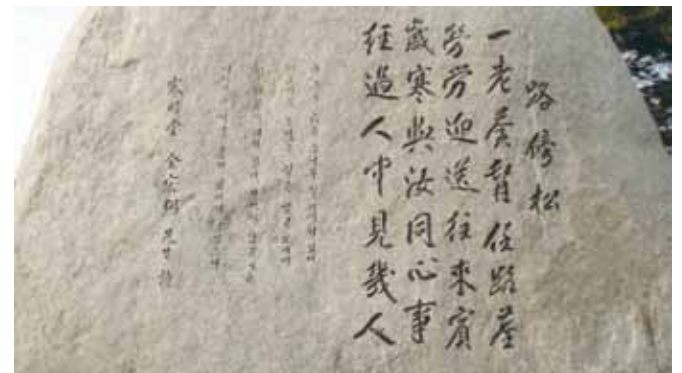
정상에는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시가 있다.

노수송(路修松)/한훤당(寒喧堂) 김굉필(金宏弼)

一老蒼髯任路塵
勞勞迎送往來賓
歲寒與汝同心事
經過人中見幾人

내용인즉슨,

한 그루 늙은 소나무 길 가에 서 있어
괴로이도 오가는 길손 맞고 보내네
찬 겨울에 너와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
지나가는 사람 중 몇이나 보았느냐?



다람재고개 표지석을 배경으로 인증샷 한 장 찍고, 정자에 올라 저녁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도동을 바라보았다. 중학교 3년 내내 일등을 놓치지 않던, 그래서 유일하게 서울로 대학 진학한 동기가 살던 곳이다. 저 마을 맨 안쪽에 도동서원이 있다. 어서 가 봐야지!!!



내리막길도 비슷한 경사도인 것 같은데, 길이 좌우로 경사져 있어 반대쪽에서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 지그재그도 못하고, 도동서원은 조선 시대 유학자인 한훤당 김굉필 선생을 기리고자 세운 서원으로 소수서원, 병산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과 함께 우리나라 5대 서원 중 하나이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다. 담장이 보물로 지정된 최초의 사려라고 한다. 다른 서원 군락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맹점으로 많이들 찾지 않아 때가 덜 탄 서원이다. 400년 된 은행나무 아래서 세월을 뉘다가 가끔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내 고향 이야기를, 도동서원 이야기를 하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나의 꿈이다.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담장), 출처 : 문화재청

도동서원 방명록에 이름 남기고 한참을 달리니 고향 구지 이정표도 보인다. 석양을 배경으로 서있는 내 고향 이정표가 이렇게 아름다울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 시간이 벌써 7시가 지나 어둑어둑해지는 가운데 끝없는 뚝방길을 달리는데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뚝방 건너편에 있던 고라니가 놀라서 반대편으로 튀면서 자전거 앞바퀴를 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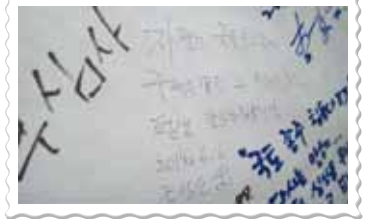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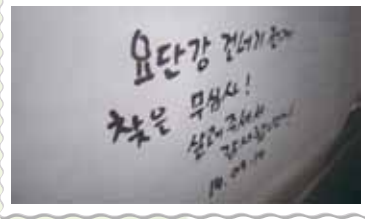


자나가 버린다. 사정없이 고꾸라졌다. 아! 이게 로드킬이구나! 아니 내가 치는 게 로드킬인데...여기저기 굽히고 부딪친 거 같은데, 우선은 정신이 없다.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어두워지는데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그게 고라니가 아니고 멧돼지였으면 어땠을까? 하필 거기부터 창녕까지는 참으로 잘 만들어진 자전거도로가 국도변을 벗어나 낙동강 주변 숲으로, 들로, 산으로 이어진다. 진짜 멧돼지가 나올만한 길들만 계속 이어진다. 합천창녕 보까지는 아직 10km 이상 남았고, 자려면 거기서도 적표교까지 5km 이상은 더 가야 하는데. 이 어둠을 뚫고 갈 용기가 나질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나타난 구세주... 무심사 안내판! 게다가 무료 숙박급식 제공이라니... 염치불구하고 물어 물어 찾아갔다. 아니 사실은 국토종주 자전거길 바로 옆이었지만, 밤이라 몰랐던 거였다. 이 와중에 우회도로 안내가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비빔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한숨 돌리니 제대로 주변이 눈에 들어온다. 역시나 여기 무심사도 밤늦게까지 찾아오는 잔티아고 순례자들로 붐볐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찾은 무심사는, 알고 보니 수많은 국토종주 자전거족들의 안식처였다. 외국인들에게까지...스님이 마침 중학교 7년 선배였다. 이런 이런 스님, 아니 선배님!!! 마흔아홉에도 대선배님 앞에서는 금방 어린애가 되었다. 고향이야기며,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맘이 편해질 때쯤 말을 꺼냈다. 스님 제 이름이 성도입니다, 成道!!! 선달 초여드렛날 부처님이 득도하셨다



는... 그래, 성도야? 넌 인연인 모양이다. 오늘 여기 온 게 그 증거다. 잘됐다, 머리 깎자!!! 아이고 선배님도...^^



아까 고라니한테 부딪쳐 쓰러지면서 다친 상처들이 아리고 쓰러다. 연고라도 없을까 물어 볼까 하다 일본일초라도 빨리 자는 게 나을 듯했다. 다행히 상처는 그리 크지는 않았다. 등 에 멘 배낭이 안전장치였던 모양인지 많이 굽혀있었다.



자전거 국토종주 4일차, 마지막 날



오늘은 갈 길이 멀다. 첫날부터 까먹은 30km를 포함해서, 배낭 두고 왔다 되돌아갔던 10km 등 150km 이상이 남았고, 게다가 4대 고개 중 하나밖에 못 넘었다. 그리고 출발 부터가 제일 경사도가 심하던 무심사 고개다... 어젯밤에 못 본? 무심사를 잠시 돌아 보는 새, 다람재고개에서 만났던 분들은 새벽같이 출발해서 무심사 고개를 올라가고 있다. 물론, 저 정도 경사는 로드로는 못 올라간다. 초입부터 끝바다..런키퍼 작동하고 출발. 재워주고 먹여준 무심사 스님께서는 인사도 못 드리고, 초입 그 급경사에서는 앞바 퀴가 번쩍번쩍 들릴 정도였지만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과수원을 지나면 정상은 금 방이었다. 합천청령보를 지나 적포교를 만났다. 적교(강 건너 동네 이름이 아마 적교였 지?)에 도착해서 쏘주 댕 병 하나 사 들고 시오리 길을 외갓집 제사 따라다니던 기억이 새록새록. 아젠 나이가 들었는지 여동생 같은 다방 아가씨가 타주는 커피를 마실 줄이 야! 택시기사 아저씨들과 옛날이야기도 하면서 다리를 쉬었다. 닉이라는, 대구서 부산 까지 간다는 학생과 그 일행들을 만났다. 이왕 자전거 타는 거라면 제대로 된 길로 가 야지 하면서 꼬셔봤지만, 다리 건너 우회도로로 가겠다네..

아쉽지만, 이별하고 혼자서 부지런히 밟다 보니 의령 박진고개를 만난다. 경사도 10%에 1,400m 정도인데, 이화령보다 힘든 건 왜일까? 그러나 1,400m는 금방 이다. 다람재고개 300m 보다도 짧은 느낌이라는... 다만 차도를 달리는 게 힘들 었을 뿐이다. 인증샷을 찍고는 다시 내리막길은 시속 50km로 내려간다. 철 이룬 코스모스도 보이고 다시 룰루랄라 페달을 밟는다. 그러나 박진교를 지나면 금방 남지 도초산고개가 앞을 가로막는다. 개비리고개라고도 하고, 영아지고개라고도 들어왔지만 막상 이 동네 할머니들은 그렇게 안 부르더라는..





도 없고, 실 그늘조차 없다. 남지철교를 지나 남가네 돼지국밥집(055-587-0555)에서 점심을 먹었다, 아니 막걸리를 마셨다. 농부들이 막걸리에서 힘이 난다고 하던 말이 이해가 되었다. 여기서는 나와 비슷한 일정으로 인천에서 출발해서 끝바 없이 우회 없이 내려온 신림동 젊은 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다. 부산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워낙이 빨라 따라잡지 못하고 창녕함안보 지나면서 놓쳐버렸다.

자전거도로 관련 이정표가 인체공학 등을 무시하고(?) 설치된 거 참 많다. 대표적인 게 경사도인데, 남지철교 지나서 철교 황토집 옆 아트막한 언덕길은 경사도 50m에 5%로 표시되어있다. 그거 보고 올라가다가는 (나폴레옹같이) 앞바퀴 번쩍 들면서 자빠진다. 물론 내려올 때는 앞으로 고꾸라진다... 백푸로!!!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낙동강 하류 자전거도로다. 그야말로 하염없는 평지 같은 내리막길을 달려야 한다. 달리다 보면 가느다란 잔도도 있고.



제일 미치고 환장하는 건 밀양강을 거슬러 올라갔다오는 약 10km 길이다. 수산대교를 건너지 않고 삼랑진 철교까지 우회하는 길이 있다고는 하더라만 역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우직함으로 맞바람을 뚫고 페달을 밟는 수밖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 다리를 콰이강의 다리라고들 한단다. 모양이 닮았나? 암튼, 자~~~ 이제 물도 다 떨어졌다. 남지를 지나서부터는 물이나 영양 보충하기가 참 어중간한 구간이다.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가 마지막이다.

부산으로 들어서니 이젠 끝도 없는 가로숫길이다. 가로수 키가 너무 낮아 자꾸 헬멧에 걸린다. 드디어 을숙도 도착!!!!!! 맨 먼저 하는 건 인증도장 찍는 것~~~ 흐흐



날이 어두워 늦게 도착한 사람들끼리 플래시 비춰줘 가며 인증샷을 찍는다. 애마와 함께도 찍고, 셀카로 마무리리^^



을숙도 바로 옆 하단역에서 지하철 타고 부산역으로 이동. KTX 막차를 예매하고,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옷도 갈아입었다. 그래 봐야 땀내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자전거는 통로 짐칸에 로프로 공공 묶어 뒀다. 승무원이 바퀴 분리해야한다고 하지만 양해를 구했다. '지금 그럴 힘이 없어...' 간단히 요기를 하고 긴긴 잠에 빠져든다. 새벽에 도착해서 집으로 자전거 끌고 갈 일이 걱정이지만...

※ 3박 4일간의 자전거 국토종주를 요약해 보았다.

1. 컨셉

- 팔당역 출발. 을숙도 찍고, 부산역에서 KTX로 귀가
- 3박 4일 일정으로 아침저녁은 여관에서, 점심은 길가에서 해결

2. 라이딩 복장

- 복장 : (헬멧, 버프, 마스크, 고글), (반팔티, 토시, 장갑), (바지, 양말, 신발) + 배낭
- 배낭(15리터)
 - 예비의복 : 긴팔티, 반바지, 팬티, 양말
 - 식량 : (김밥, 우유) + 행동식
- 자전거 장착 : 전조등, 후미등, 물병(2), 자물쇠 + 프레임 가방
- 프레임 가방
 - 핸드폰, MP3, 스피커, 충전기, 펌프, 공구, 튜브, 로프
 - 종주수첩(카드, 현금), 지도, 메모지, 펜
 - 물티슈, 휴지, 파스, 밴드, 알로에

구분	구간	거리(km)	출발	도착	시간	평속(km/h)	고도(m)	칼로리(cal)	간식(원)
1일차	팔당 - 충주	135	9:06	20:38	11:32	11.7	2,400	4,605	8,100
2일차	충주 - 상주	115	8:56	19:02	10:06	11.4	2,313	4,162	14,500
3일차	상주 - 창녕	150	7:27	20:09	12:42	11.8	1,818	5,574	13,500
4일차	창녕 - 부산	151	7:26	21:06	13:40	11.0	1,659	5,612	2,950
합계		551			48:00		8,190	19,953	39,050
평균		138	8:04	20:14	12:00	11.5	2,048	4,988	9,763

참고) Runkeeper Android 버전 4.5.5 기준으로 작성했다. 마지막 날, 땀만 이상으로 런키퍼가 오작동했다. 그래서 76km 이후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경로 수정했다. 대체적으로 맞는데 고도 수정이 안된다. 원래 1,659m 였는데, 수정하고 보니 1,722m로 나온다.

※ 남한강 - 새재 - 낙동강 자전거 국토종주 3박 4일을 마치면서 느낀 소회들을 Q&A 방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Q. 인천-부산 633km 3박 4일 자전거 국토종주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A. 차를 몰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통행료가 얼마나 될까? 자전거 전용도로(물론 100%는 아니지만)를 때에 따라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다는 건 상당한 혜택이다. 한 번의 종주만으로도 4대강 사업에 내가 낸 세금 다 돌려받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라면 세금 걷을 생각도 하겠다.

Q. 체력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A. 예상 못 했던 게 엉덩이였다. 체력전일 거라는 예상에 첫날은 내리막길에도 엉덩이 한번 안 떴고 앉아만 있었는데, 엉덩이가 짓물러서 고생했다. 엉덩이를 아껴야 한다.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은 버틸만하다. 그다음은 손 저림이다. 로드는 어떨지 모르지만, MTB는 자세가 고정되어있다 보니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양손 새끼손가락 주위가 저리다. 가끔 손을 풀어줘야 한다. 나는... 둘째 날부터는 마주 오는 사람 들한테 무조건 손을 흔들어서였다.

Q. 4대 고개를 끝바 없이 오를만한가?

A. 물론이다. 자전거는 타라고 만든 거지, 끌라고 만든 건 아니다. 국토종주길도 자전거를 타고 가라는 거지 끌고 가라는 길이 아니다. 당연히 MTB로는 탈만하다(다람재고개를 상류 쪽으로 오르는 건 장담하기 어렵다). 로드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오를 만은 할 테지만, 아무래도 펄크의 위험이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Q. 다시 한다면 수정할 프로그램은?

A. 첫날은 무조건 수안보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잔티아고 순례자들과 어울릴 것이다. 모텔이 아닌. 그럼 둘째 날 구미, 셋째 날 밀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상주 자전거 민박집이나 창녕 무심사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꼭 들를 것이다. 그리고 목표에 집중할 것이다. 인증센터에서 도장 찍는 데만 만족하고, 관광은 NO! 동동서원 같은 데서 낭만에 빠져 일정에 쫓기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건?

A. 우연인 듯한 인연이라 생각되는데, 고향 달성에서 고라니와의 로드킬로 다친 몸을 이끌고 어두워져 가는 창녕으로 들어섰을 때 불빛에 이끌려 목에 된 창녕 무심사!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데서 기다려주는 곳이다. 물론 나에게는 참으로 절박한 시간에 맞이해주었고... 중학교 7년 선배이기도 했던 스님의 돌아가지 말라던 말씀까지! 사족(?)이지만, 상주 자전거 민박집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도 함 해봤으면...

